

마을 전체가 미술관 '제3회 양림골목비엔날레'

주제전시 'Connecting Way'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공간 포함 주민·예술가 등 마을예술축제 식당·상가 세일 '양림 스푼워크'

광주비엔날레 기간 열리는 또 다른 미술축제 '제3회 양림골목비엔날레'가 오는 11월 10일까지 열린다. 오는 7일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판소리, 모두의 울림) 본전시 장소로 양림동 일대가 포함된 가운데 예술인, 상인, 주민들도 함께 모여 곳곳 흠어진 전시장과 길목 사이까지 다채로운 예술의 장으로 채운다.

이번 양림골목비엔날레 주제는 'Connecting Way: 사이 사이를 잇다'이다. 정현기 호랑가시나무장작소 대표가 전시 총감독을 맡았으며 회화, 사진, 설치, 퍼포먼스,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작가 29인이 참여한다. 특히 지역에서 유일하게 호랑가시나무장작소가 2024 지역전시활성화 지원사업(주관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선정되면서 전시가 추진될 수 있었다.



광주 양림골목비엔날레 개막잔치가 지난 4일 남구 10년후그라운드 가든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 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참가자들이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있다. 양림골목비엔날레는 미술관, 식당 등 양림동 일원에서 열리며 오는 11월 10일까지 열린다.

나건호 기자

정현기 전시 총감독은 "올해 양림동에서 8개의 비엔날레 메인 전시관과 5개의 파빌리온 전시, 그리고 양림골목비엔날레가 열린다. 이 전시들은 마치 점처럼 분산되어 있어, 그 사이 사이를 잇는 것이 필요했다"며 "Connecting Way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관람객들에게 하나로 연결된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양림동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반영하 마을 자체

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크게 두 섹션으로 나뉜다. 먼저 Connecting Way Part1 '사이, 시공간의 흔적'이다. 이 섹션에서는 △1912한옥(빛, 시간의 중첩) △10년후그라운드(잇다) △차고갤러리(조우하다)가 상설전시장으로 활용된다. 이 전시장 사이를 잇는 야외 골목 곳곳에 다양한 작품도 설치된다.

1912한옥은 110년 전에 지어진 한옥과 70년대에 지어진 양옥 건물, 마당으로 구성된 곳이다. 이번 양림골목비엔날레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설 전시관으로 활용된다.

차고갤러리에서는 호랑가시나무장작소 출신 작가들의 릴레이 개인전이 이어진다. 복합문화공간 10년후그라운드에서는 환경문제를 동양적 개념에 비춰 해석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 건물은 과거 은성교회, 은성유치원 등으로 사용된 바 있다.

Connecting Way Part2 '사이, 작가의 흔적'은 현재 양림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의 오픈 스튜디오 전시다. 강근선&박성호, 신선화, 신수정, 이이남, 이조흠, 최석현, 최순임, 한부철 작가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창작공간을 엿볼 수 있다. 부대행사로 아티스트 토크와 아트투어 버스도 진행한다.

양림골목비엔날레 주제전 'Connecting Way' 이외에도 투어, 체험, 공연,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9월 한 달간 양림동의 식당, 카페 등이 참여하는 그랜드 세일행사 '양림

스푼워크', 학강초등학교 어린이와 마을작가들이 함께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스와인하트 스쿨', 광주·전남 14개 단체·기업이 참여하는 '파트너 프로그램', 양림동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소축제 '걷기좋은 양림' 등이 준비돼 있다.

한편 7일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소리숲-양림'은 양림동 일대 8개 전시공간 △양림문화센터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한부철갤러리 △한희원미술관 △양림쌀롱 △옛파출소 △빈집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 펼쳐진다. 국가별 부족전시 파빌리온도 △이강하미술관 △양림미술관 △이이남스튜디오 등 5개소에 마련됐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ACC '피카소를 만나다' 다큐 상영

'피카소 도예' 전시 연계 11일 문화정보원 극장3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1일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피카소 도예' 전시와 연계한 '피카소를 만나다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

지난 1954년 이탈리아 영화감독 루치아노 엠메르(Luciano Emmer)가 제작한 '피카소를 만나다'는 피카소가 도자를 제작하고 드로잉을 그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40분 분량의 영화는 철저한 관찰자 시점에서 현대미술의 천재라고 불리던 피카소의 몸짓과 표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그의 열정과 실험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영화는 촬영 당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 활동과 도예 작품에 몰두해있

던 피카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로 피카소라는 천재예술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피카소와 현대 도예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TV 프로그램 '예썰의 전당', '자이나는 클래스' 등에 출연한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날 상영회에서는 피카소의 생애와 화풍의 변화, 그의 도자 작품에 담긴 미학적 가치와 미술사적 의의에 대한 양 교수의 생각을 공유한다.

지난 7월 16일에 개막한 '피카소 도예' 전시는 개막 47일인 8월까지 6만2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오는 29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4관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지난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견희컬렉션 피카소 도예 107점을 만나볼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이호준 팔순 개인전 '구름처럼 흘러온 흔적'

22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광주대학교 호심미술관은 오는 22일까지 윤거(雲擧) 이호준 작가의 팔순 개인전 '구름처럼 흘러온 흔적'을 개최한다.

광주대 평생교육원 한국화반에서 화업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화, 문인화, 서예, 시화 등 4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공직생활을 하며 45세 때부터 붓을 잡기 시작해 35년 동안 주경야독으로 문인화, 서예, 시문학, 한국화, 연필

인물화, 수채화, 전통 민화를 익혔다.

이 작가는 "감상하는 데 부담 없고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창작하려 한다. 농촌과 자연의 서정적 풍광을 그린 작품을 통해 작게나마 위안과 편안함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작가는 여러 장르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고 있다"라며, "팔순에 접어들었지만 '구름처럼 흘러온 흔적'으로 이룬 꿈의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동구문화관광재단 '동구미션투어' 운영

광주폴리 연계 포토스팟 찾기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9월부터 11월 까지 광주읍성터를 중심으로 구시청, 충장로, 동명동 일대의 골목을 돌아볼 수 있는 '토퍼씨와 롤리폴리 동구미션투어'를 운영한다.

'토퍼씨와 롤리폴리 동구미션투어'는 △광주폴리 △테마골목 △관광명소 △휴게공간 △전망대 등이 랜덤으로 배정된 미션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포토미션을 수행하게 구성되어 있다.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관광기념품을 증정하고, 참여 후기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고 운영물품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인 광주폴리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골목길과 연계함으로써 동구 골목관광의 재미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도선인 기자



'토퍼씨와 롤리폴리 동구미션투어' 포토미션 인증 예시.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참여를 희망하는 방문객은 누구나 광주동구 캐릭터샵 '충장프렌즈 하우스'(동구 충장로 65, 2층)에 방문해 동구여행토퍼와 미션 봉투를 수령한 뒤 시작할 수 있다. 최근 8월 개소한 '충장프렌즈 하우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이다.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